



# 부산광역시 신청사

The City Hall of Pusan

이 용 흠 Lee Yong-Heum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전경 (표기기명의 사진 /이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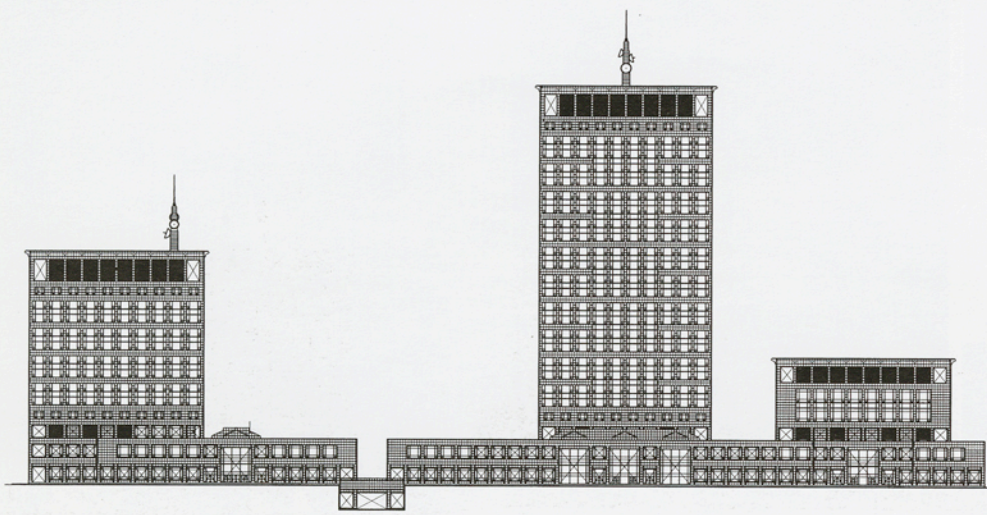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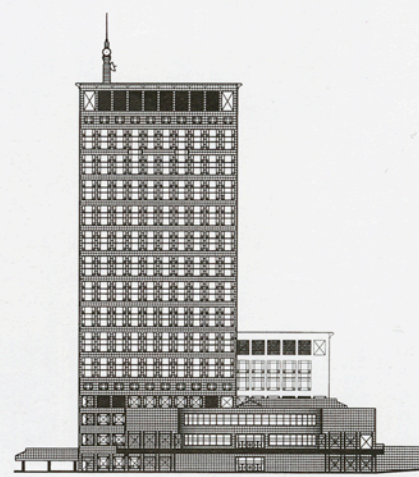
경찰청 부출입로에서 바라본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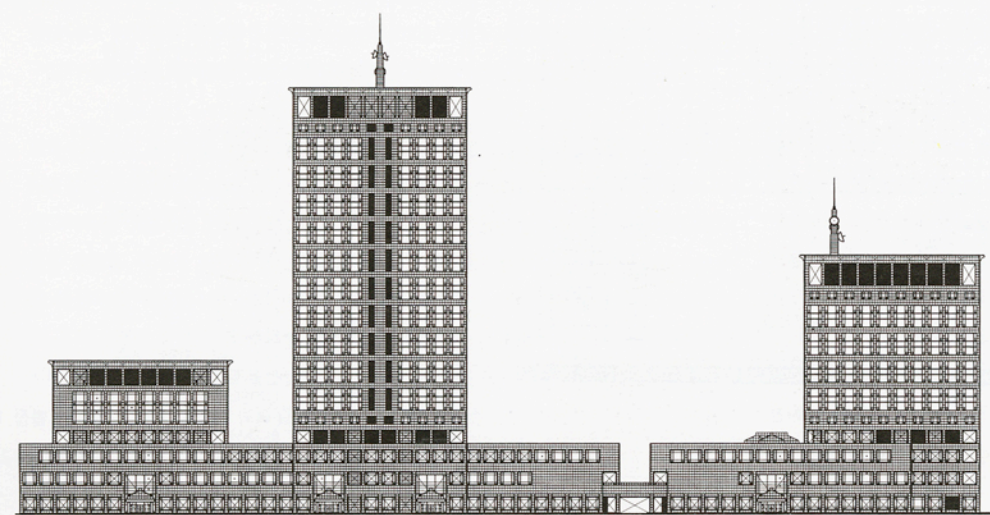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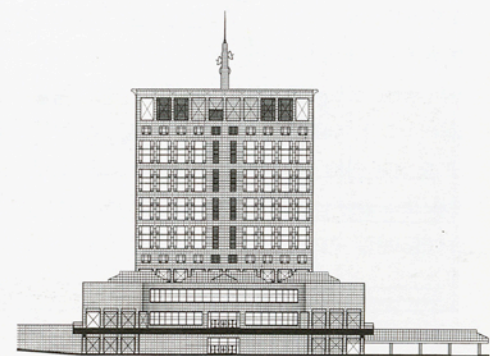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시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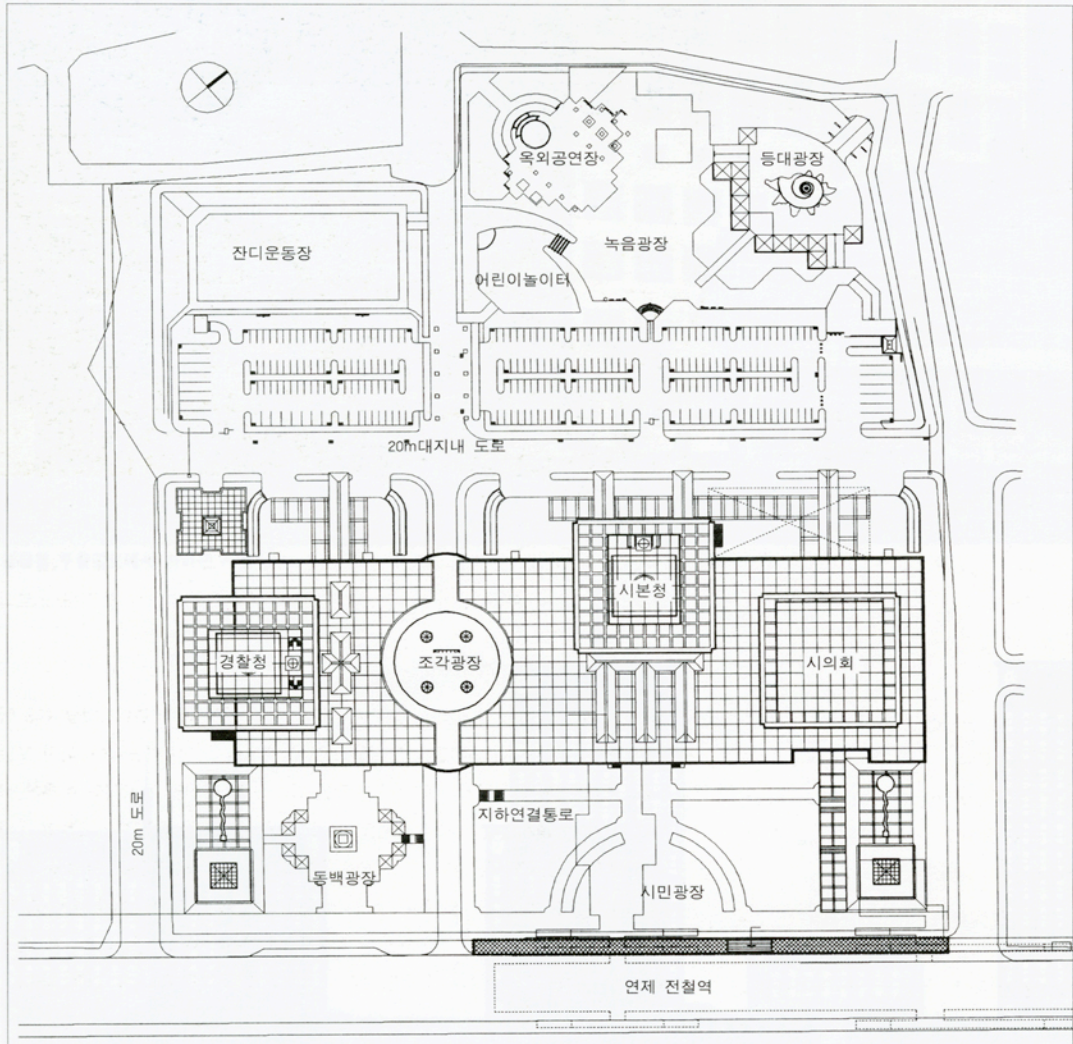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경찰청)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면 적 : 75,880㎡ (22,954평)  
 건축면적 : 20,426.14㎡ (6,179평)  
 연 면 적 : 171,935.04㎡ (52,010.3평)  
 시 분 청 : 116,938.68㎡ (35,373.95평)  
 시 의 회 청 : 14,633.07㎡ (4,426.50평)  
 자 경 대 : 37,870.59㎡ (11,455.85평)  
 건축면적 : 2,492.70㎡ (754.04평)  
 건축률 : 26.92%  
 건축용적률 : 153.49%  
 시 분 청 : 지하 3층, 지상 28층  
 시 의 회 청 : 지하 3층, 지상 7층  
 자 경 대 : 지하 3층, 지상 16층  
 지 구 :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1,295대  
 (옥외 247대, 옥내 1,048대, 법정 1,286대)  
 외장 마감 : 화강석 버너마감 (일부 화강석 물갈기) + 복층유리

배치도

**건축가의 인터뷰** 부산신청사의 설계자 이용홍((주)일신설계 대표) 소장으로 부터 설계에서 완공까지 8년여에 걸친 작업과정을 들어 보았다.

**질문1.** 부산시 신청사 완공은 일신의 역사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청사가 한국의 공공청사 건축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설계경기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에 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고 4년이 걸린 공사였습니다. 올해 2월에 입주를 다 마쳤지만 감리 종료는 2월말경입니다. 올 2월 22일로 저희 일신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이번 신청사 준공은 짧은 역사에서 결산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부산 소재지의 사무소로서 부산 건축가들의 꿈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 사람들보다 우리가 부산의 정서, 부산의 여건, 자연환경 등을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신은 그동안 구청사, 경상남도 의회, 경찰청 등 많은 관공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2.** 부산시 신청사는 광활한 대지에 사무동, 의회동, 경찰청 등 기능과 규모가 다른 세동의 건물을 복합화하여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치라든가 기능의 설정, 형태의 조화와 독자성 부여 등이 쉽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현재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단순 명료한 해법으로 여겨집니다. 설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보통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데 정반대로 건물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건폐율이 약 20%수준으로 협소한 대지에서의 설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분청, 의회, 경찰청의 입장이 각각 달라서 까다로운 요구가 많았으나, 건물배치적 측면에서 개개의 요구사항을 제쳐두고, 도시 맥락적, 기능적으로 하나의 군으로 보았고, 각 건물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전면에서 보았을 때 세 건물이 거의 비슷한 축에 앉아 있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Cdmplex를 하나로 묶어주는 저층부 연결, 공원의 개념으로서의 외부 광장의 형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획시 건물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측면에 큰 비중을 두었고, 상주하는 시공위원을 두번째로 사용자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전면부의 시민광장 후면부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으며,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질문3.** 결과적으로 상호 연계와 독립이 잘 이루어져 부산을 대변하는 건축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청사는 일반적인 사무소 건축과는 달리 어떤 상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관료적이거나 오도민 건축 지향의 건물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대개 관공서 설계에서는 건물에 상징성을 두드리지 않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 위압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품위 있는 업무용 빌딩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저층부에 고전적 양식의 기단부 형성이든지 회랑구성으로 고전적 감각을 도입하였고, 상부 지붕에는 코니스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청 저층부와 시분청 저층부 사이에 원형조각광장의 설치로 전체 건물의 구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입면에는 모듈화된 패턴의 반복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질문4.** 대지의 고저차를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등 명쾌한 동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비공간은 아트리움등 보다 극적인 공간감이 아쉽기도 합니다. 대지 전후면의 지형고저차를 이용하여 전면에서의 진입과 후면에서의 진입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대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였고, 정면에서의 출입은 2층으로 진입하여 보행자,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주동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층부는 복합공공청사의 개념으로 넓고 긴 저층부로 연결된 전면 외부공간과 후면 외부공간을 구획하여 대지 각 영역의 질서와 성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내부공간은 인테리어가 안되어 아직 허전하나, 환경조각과 예술품의 설치 등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상부를 관통하는 스카이 라이트는 공간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5.** 전후 광장과 정원같은 공공적인 외부공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전면도로에서 본다면 영역감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 좌우편에 조그마한 파빌리온과 파고라를 두고 화장실등 썬비스 시설을 코너에 설치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오픈 스페이스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청사 전면에 시민광장을 비롯하여 경찰청 주진입구의 동백광장 그리고 항구도시의 부산을 상징하는 돛, 등대 등의 시설물이 있는 공원 잔디운동장 등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질문6.** 신청사는 여러가지 공법이 도입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면이나 재료적인 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외장재의 재료선정에 있어서 현대 한국건축은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알루미늄 판넬, 석재 등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국산 화강암을 사용하여 한국건축의 느낌이 나도록 했고, 화강석의 색이 균질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구조적 측면으로 본다면 상부에 튜블라 구조가 제대로 사용된 최초



시의회 옥외 휴게공간

의 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외부의 단정한 입면, 골조에 의한 공간격의 외각기능을 배치하여 힘력에 의한 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층부에는 철근콘크리트의 일체식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7.** 최근 한국이 대형 건물을 보면 대개 해외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실정에 안맞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도 외국 건축가와 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요. 초기 설계경기 당시 외국 건축가 2명과 협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형 사무실 건축에 대한 경험과 입면, 구조, 외부공간, 디자인 등에서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때에는 30평 규모가 50평으로 늘어났으며 BS가 공사 중 도입되었고 층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실시설계, 재료선정 등을 저회 손으로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설계개념은 계속 유지됐고 더욱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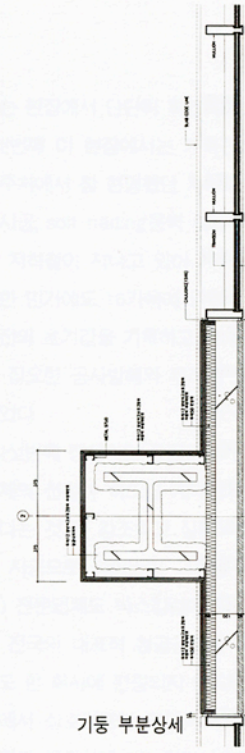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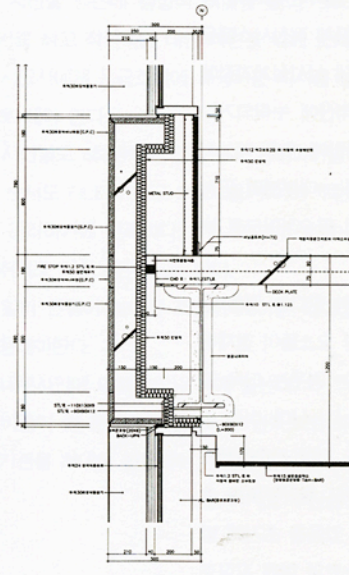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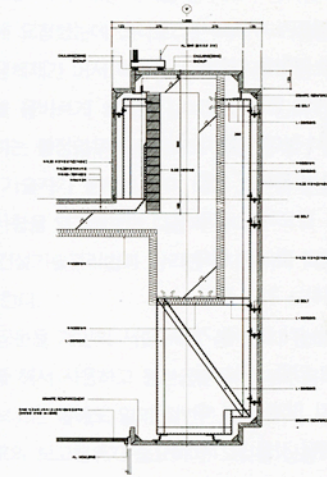
시본청과 경찰청을 가로 지르는 도로에서 올려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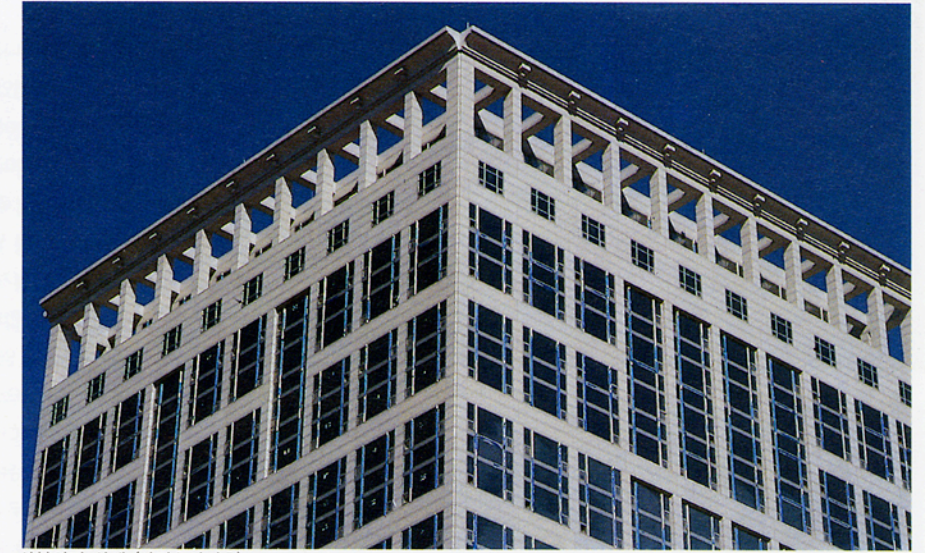
시본청 주출입구에서 경찰청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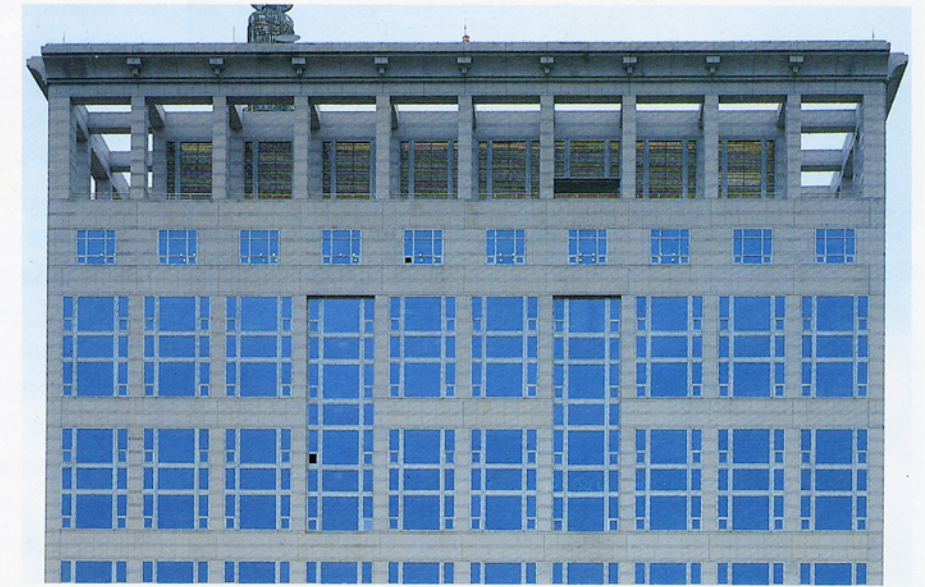
기동 부분상세



외벽 부분상세



상부입면 상세 (사진/ 이기호)



본청입면 상부상세



시의회 입면 상세 (사진/ 이기호)



## 부산 신청사 현장에서 45개월간의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마치면서

부산신청사 건립공사가 작년 말로 4년간의 공기를 무사히 마치고 준공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마침 책임감리도 45개월간의 계약기간 만료를 다퓌 앞두고 있다. 부산신청사 건립현장은 정부에서 94년 1월부터 의욕적으로 실시한 책임감리제도하의 시범케이스였다. 이 현장은 93년 12월 31일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제도하에 4개 사에게 낙찰되어 계약과 동시에 착공되었다. 4개 시공사는 삼성(45%), 롯데(31%), 삼익(20%), 자유(4%)인데 공동이행방식으로 Joint Venture 를 이루었다.

건축공사 낙찰률은 64.97%인데 아마도 관공서 청사 공사로서는 사상 초유의 최저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사비 1,125억(물론 관공재 306억은 별도)을 730.97억에 선급금도 없이 오히려 공사차인액(1125×85%-730.97=225.28억)을 현찰로 맡겨놓고 해야할 판이었다. 시공사는 실제 45.87%에 공사를 딱 셈이었다. 공사를 따는 순간부터 선지급금과 공사이행 보증금의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323억원의 손해를 안고 가는 셈이었다. 당시 이 뉴스에 접하고 솔직히 이 공사의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다.

이듬해의 94년 1월 18일에 착공식이 거행됐고 공사는 군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부지정지 공사로 이어졌다. 물론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5월까지 갔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건축폐기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공사비내역에 별도 명기가 없다고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다. 결국 경비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변경불가 처리되었지만, 향후에는 현실과 입찰때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를 느낀다.

설계를 일신에서 했으니까 감리도 당연히 일신이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 쪽 생각일 뿐이었다. 전처용역자(즉, 설계자)에게 유리한 채점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PQ 등수안에는 들겠지만 공사와 마찬가지로 방식인 최저가 입찰(하한선 85%)이어서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책임감리제도 초기여서 감리시간 질서가 없었던 때였고 감리비 42억원이란 감리회사의 명운을 걸고 매달릴만한 먹이감이었다. 본사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감리를 수주했다.

1994년 5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책임감리단 착공계를 내고 5월 29일 현장에 첫투입되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부지정지가 대강 끝나고 지하연속벽작업을 위한 가이드월 공사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가이드월(안내벽공사) 공사는 공사초기작업중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일반기술자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장은 부지경계선과의 사선제한문제를 비롯하여 부지정지선의 확정등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정확을 기해야하는 사항이 무심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서둘러 이를 재검토한 결과 가이드월의 위치를 1미터 우측으로 이동해야하는 결과가 나왔다. 공사초장부터 기시공된 부위를 철거하고 재시공해야하는 일이 발생되자 담당자들은 자못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시공사로부터 지하연속벽 굴착장비승인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처음보는 신형 하이드롤릭 굴착기여서 당황했다. 제원을 파고 들어가보니 이 장비는 행글랩 타입(장비값 약 500만원)에 비해 상당히 고성능의 굴착기를 갖고 있는 고가(약 20억)의 장비였다. 시공방법이나 연속벽 패널간의 조인트 처리방법도 전혀달랐고 특이했는데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기콘크리트 시공된 패널에 조인트 처리를 함에 있어 장비로부터의 파취충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문헌이 없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지하연속벽 공사는 짜는듯한 여름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마도 이제껏 제일 더운 여름이었다. 나중에 28일 공시체 압축강도(강도270kg/cm<sup>2</sup>) 테스트 결과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압축강도 시험결과치가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장에 레미콘이 들어오면 일단 레미콘 송장을 타설지점에서 확인하고 공장에서 출발시간과 현장까지 운반에 걸린 소요시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150㎡마다 슬럼프 테스트와 공기량 측정, 염화물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3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마지막으로 타설직전의 생콘크리트 온도를 체크한 연후 곧바로 타설로 이어진다. 중도에 타설 중지가 불가한 특수성 때문에 레미콘공장과 현장간에 유기적 협조관리체제가 필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레미콘의 경우 공장에서 시험배합을 해보고 현장에서 슬럼프테스트, 염분테스트 등을 해보지만 그것 갖고는 완전할 수 없기에 타설시 몰드를 7일, 28일 수중양생시켜 압축강도 시험기에 넣어 깨어보는데 그때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구조체를 시공한 후라 문제가 어렵게 되지만 코아를 드고 코아강도의 기준하나 국내판별기준이 없어 ASTM기준을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이다.

감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디 하나들이 아니지만 중요한 순으로 적어 보면, 첫째 감리에 투입되면 우선 도면을 놓고 설계의 의도가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해야한다. 감리가 단순 인스펙터(검측자)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그 현장은 불행하게 될것이다.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설계자와의 눈높이를 함께 하고 부단히 연구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와 공법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요즘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마인드가 참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투입초기에 도면을 펴놓고 공사물량을 직접 뽑아볼 필요가 있다. 또, 물량을 산출하되 시공순서에 입각해서 산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다보면 공정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의 연계성이 체크되고 양중, 가설, 장비나 자재, 인력수급, 동선계획 등 부수적인 소득을 적지 않게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초의 적산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몇가지씩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예산을 수정하여 공사에 정확을 기할 있게 된다. 국내 대다수의 설계사무소들이 자체 적산시스템을 가동하는 경우가 드물고 전문 적산소에 용역처리하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왕왕 발생하는 발주처와의 설계변경 협의사항이 적산에 누락되거나 기한에 쫓겨 정밀한 적산이 되지 못하고 납품되는 바람에 추후 예상치 못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게 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단가 내역입찰이고 준공시 물량에 의한 정산과정이 필수적이므로 보다 정확한 물량산출을 감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은 지질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싶다. 지질조사 보고서 역시 설계당시에는 불충분한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 부지내 공사를 하면 철거해야할 건물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고, 공사 전체를 통털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를 소홀히 하게되면 공사를 다해 놓고 준공테이프를 끊기도 전에 건물전체가 기우뚱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부산신청사의 경우도 취약부위를 추가로 지질조사하여 당초 지질보고서와는 다른 지형이 있음을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내력 테스트와 함께 지질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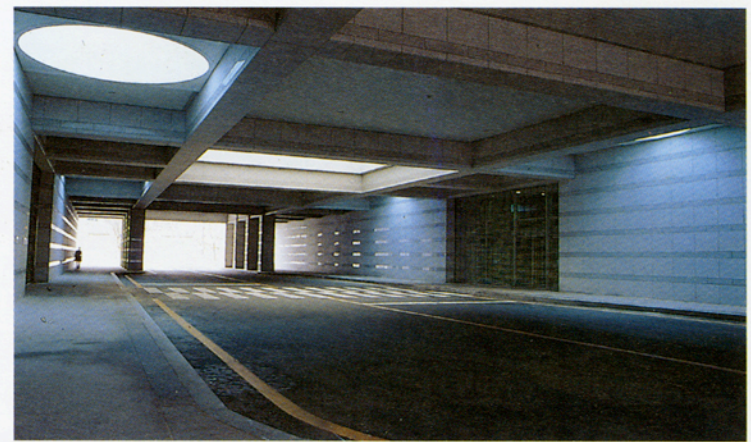
사는 현장에서 단단히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네번째 이 현장에서는 계속관리를 감리업무에 포함시켜주었는데 이것은 발주처에서 참 현명했던 처사로 보인다. 지하연속벽 시공과 무진동 암파쇄시공, soil nailing옹벽 시공이 이루어지는데다가 바로 부지앞에서는 1호선 지하철이 지나고 있어 계속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또 대지와 연결한 민가에도 16가옥에 균열 측정기와 기울기 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시 작전의 초기값을 기록하고 계속 관리를 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추후 민원의 집요한 공사방해와 무리한 보상요구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었다.

다섯번째 정상적인 품질관리가 되도록 사전 정지작업(예를 들면 공사전문업체의 선정과 하도급 계약관계라든가, 관공공사의 업체선정 등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산신청사 철골공사 계약서의 경우 자재납품 시공으로 되어있어 그것을 하도급계약으로 변경시키고(재하청 못주도록) 전문업체도 박스칼럼에 필요한 특수용접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전국의 대표적 철골공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 선정했고 물량도 한 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배해서 계약하게 함으로써 품질과 공기면에서 상호경쟁이 되도록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또 관공공사도 업체의 능력과 무관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참여업체를 엄격히 선별해 줄것을 발주처에 요청했는데 생각보다는 벽이 두터움을 느껴야 했다. 품질우선의 자유경쟁체제가 어서 확립되어 적자생존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크게 보아 나라를 올바르게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감리업무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행정업무에서 의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평소에 기술자가 문서에 낮이 살고 노련한 관정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지침서의 기본을 잘파악하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2. 공문을 개인의 서랍 속에 잠재우지 않아야 한다. 담당자가 필요하면 카피를 해서 사용하고 원본공문은 신속히 움직이게 해야 한다.
3. 보고만 잘해도 일의 절반은 한 셈이다. 긴급사항일수록 즉각적인 상부부서로의 보고행위가 중요하다. 그것은 상황의 확대를 막고 처리방향의 정확한 지침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보고를 하되 반드시 문서(최소한 FAX)로 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시공사에게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지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때도 문서로 해야 한다.
5. 사안별로 6하원칙에 입각하여 기록화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고 일의 순서도 FILE화 하고 CODE를 부여해 두는데 시간을 이용하면 독립코드로 관리하기에 편리하다. (예: 980223-0930-1) 또 가능한 사진과 비디오, 녹취록도 채취보존하도록 한다.
6. 일의 진행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촉구 공문을 활용해야한다.
7. 내부사안에 대해 보안유지에 힘쓰다.
8. 비중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단독으로 하지 말고 권위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간다.

(글/이기호:부산신청사 건립현장 책임감리 단장)



시본청을 관통하는 도로 (사진/ 박은실)



옥외 파고라 (사진/ 박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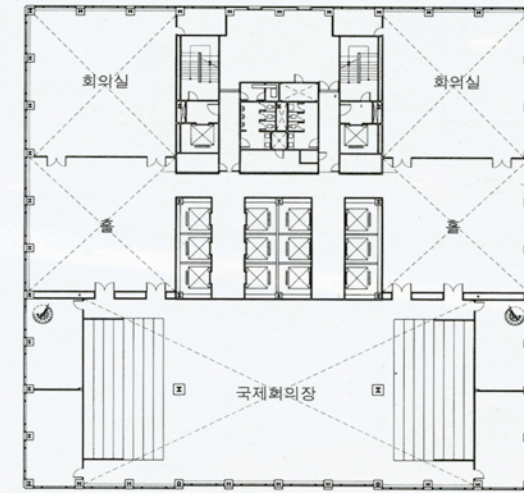


시의회 옥외 휴게공간위 분수 (사진/ 박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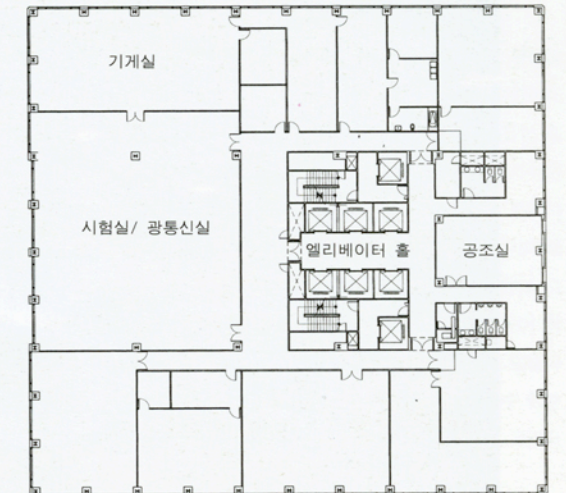


조각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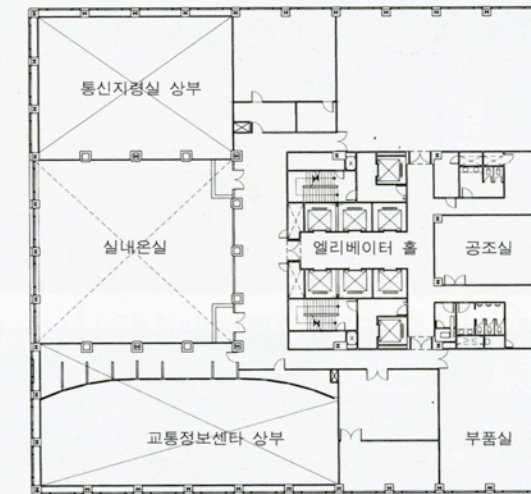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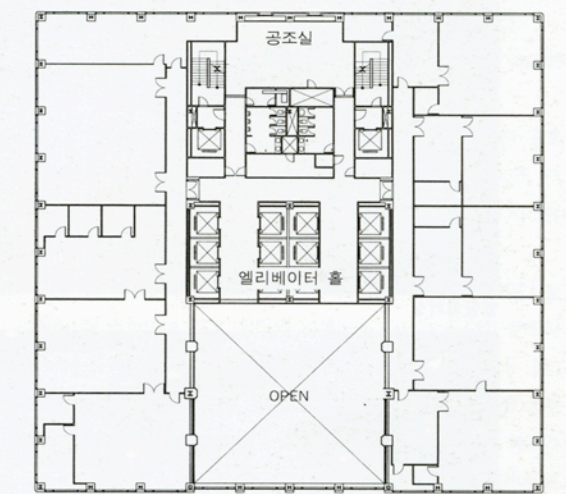
12층 평면도(시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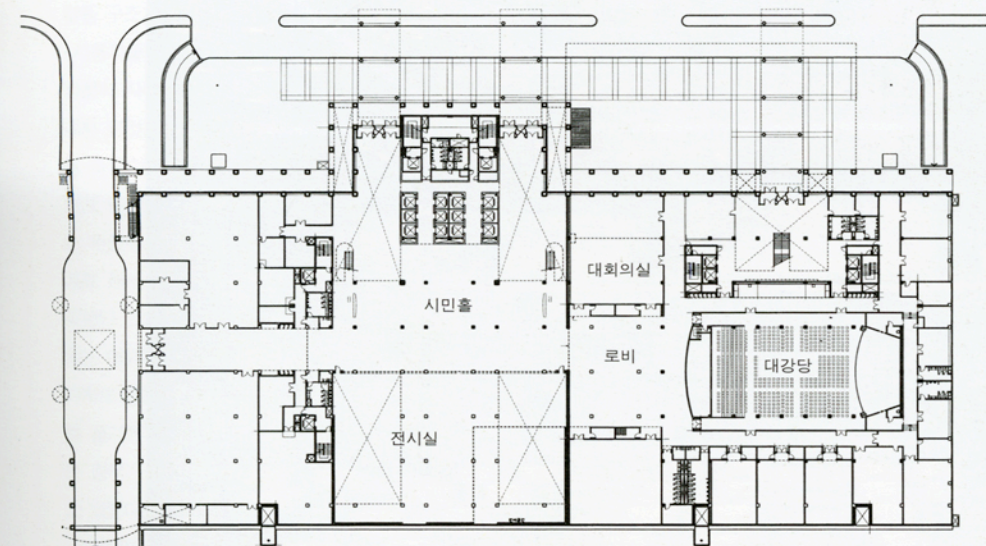
13층 평면도(경찰청)



6층 평면도(경찰청)



7층 평면도(시본청, 시의회)



1층 평면도(시본청, 시의회)

실내아트리움







영상회의실



시의회 회의장

## 시민을 위한 청사

신청사 감리는 독특한 감리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감리단보다 사람이 많았고 23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조직을 이루어 같이 일한 경우는 드물지 않나 생각 된다. 현장 중에서도 특히 힘든 현장이었고 개인의 희생이나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현장이었다. 무엇보다도 감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 - 감리원들이 소위 떠내기가 많아 자주 옮겨 다니는 것 - 가 극히 적었고, 거의 멤버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퇴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독특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이 감리현장 4년의 공사가 큰 사건이나 무리없이 끝나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리는 도면대로 잘 공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감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감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도면이상의 감리를 했다는 점이다. 도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즉, 그야말로 작품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완성하는 일이 감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결제를 받고 각 부분부분을 결정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는 점이고 현장에서 실행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그런 과정들이 참으로 가치있었다고 생각한다. 창조적인 감리는 상당한 갈등을 가져온다. 시공사, 발주처, 사용자,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수준은 높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 즉 발주의 금액이라든가 시공상의 문제, 촉박한 시공상의 공기들, 행정처리 관계, 회사자체내에서는 각 간부들간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술적, 건축적인 시각차이 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시공사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좋은 자재, 색상, 디자인을 요구하면 시공사로서는 더 많은 돈, 시간, 노력을 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부를 하기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고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여 한고비 한고비를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고압계도 시공사가 많이 협조를 해 준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리단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잘 넘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발주처와의 갈등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화된 적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행정위주의 사고, 감사 만능주의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많았다. 좋은 안(내화피복재를 비롯한 재료, 각종 디자인, 시공법 등)을 제안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감사에 지적된다,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그런데서 오는 실망감 또는 공무원들과의 업무상 인간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용자들과의 관계인데 시본청에서는 신청사 기획단이 있었고, 중간에 시의회에서는 신청사 사무처가 생겼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기획단이 있었다.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내와 이것저것을 요구했기에 엄청나게 많은 변경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시의회의 의원 좌석수를 늘려 달라고 하여 거대한 철근보를 뜯어 낸다든지, 대대적인 구조 변경을 하게 만들었다든지, 각 실의 오픈 구조를 칸막이를 치게 하여 전기라든지 공조같은 것이 완전히 변경이 되게 하는 등 힘든 일이 많았다. 프로그램이 미리 짜여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시공사나 우리 감리단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워낙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창안해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텐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일에 쫓기게 되었다. 시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재 수급과 적절한 자재 사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촉박하여 어떤 때는 자재를 구하지 못해 있는 자재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하는 등 이런 대규모 공사에 있을 수 없는 모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사용자와의 가장 큰 갈등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자체내의 갈등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의 구조자체가 상당히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급자의 디자인 철학, 의견, 취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 철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념으로 건축에 접근하고 있는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의 근본적인 목적이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상과 수준이하의 경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준이하일 경우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작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에서 워낙 시간에 쫓겨서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단계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를 많이 놓치고 감리단계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다음 설계에 반영되고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자체가 현실성 있게 되어 감리단계에서 손 쓸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감리를 설계의 연장단계로 본다면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리단에 투입되어 함께 일해야 한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감리를 하게 되면 창작에 이르는 단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로 팀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협조되면서 작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들이 사무실 자체의 조직, 감리단 구성상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제 감리하면서 느낀 우리 신청사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째 신청사는 시민을 위한 개방된 청사다. 건폐율이 약 30%에도 못미쳐 대지의 약 70%이상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전체 대지를 녹지와 휴게공간화 시켜 개발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시에서 담장을 요구했지만 설계, 감리단의 요구로 무산되었다.

둘째로 편리한 청사이다. LAN시설 및 IBS 시스템을 다 갖추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시민, 공무원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번째로 견고하고 건실한 청사이다. 구조적 실험무대라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구조형태를 보면 시본청·경찰청은 철골조, 시의회의 SRC조, 저층부는 RC조,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철골구조중 튜블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진력,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였다.

네번째로 현대적이고 미려한 청사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배치 계획이 잘 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도 세동의 건물이 잘 조화되어 있고 유리외 알루미늄 사시가 뚜렷한 콘트라스트를 가지며 하늘의 색에 따라 반사유리의 색이 달라지는 변화하는 청사이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연출된다. 맑은 날은 건물 상부부분의 격자구조가 상부그릴에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며, 파고라와 회장이 드리우는 강렬한 그림자는 신청사를 빛과 그림자의 건축물이라 부르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글/이태은: 부산신청사 건립현장 책임관리 부단장)



국제회의장 홀